

《지식의 지배》

지식은 부의 새로운 원천

글 권영설(한국경제신문 가치혁신연구소장)

저자가 되는 것은 영광이다. 책 제목을 얘기하며 “내가 그 저자(author)”라고 할 때 미국인들이 보이는 반응은 정말로 존경 그 자체다. 그만큼 책을 내기가 쉽지 않은 환경 탓이다. 출판사 편집자들이 깐깐하기도 하고 따지는 것도 많기 때문에 자비 출판이 아니라면 글을 썼다고 자기 책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 현실은 작은 출판사들이 쉽게 생기고 또 콘텐츠에 대한 수요도 높은 상태라 필자 같은 사람도 쉽게 저자가 될 수 있었던 단계 아닌가 싶다. 그 사이 두 권의 책을 더 썼고 두 권을 번역할 수 있었다. 저서와 역서 목록이 늘어갈수록 오히려 자신감이 떨어지고 두려움이 늘어가는 건 어쩔 수 없지 않나 싶다. 특히 항상 마감시간에 쫓겨서 겨우겨우 책을 내다보니 더 그렇다. 그래서 한번은 출판사 편집자에게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다.

“앞으로는 계약 먼저 하지 않고 그냥 시간 나는 대로 쓰다가 완성되면 출판사를 접촉해 보려고 해요. 마감지키려니 너무 고생스럽고, 또 완성도도 떨어지는 것 같아서지요.”

출판사 편집자의 회답은 예상대로 였다.

“그렇게 하다간 절대 책 못냅니다.”

수년 전에 읽은 《지식의 지배》(Building Wealth)를 앞에 놓으니 생각나는 것이 있어 책과 저자 얘기를 하고 있다. 모 경제연구소의 임원으로부터 이 책의 저자 레스트 C. 서로우의 저작 방식에 대해서 들은 것이 있었다. 그 연구소는 수년전 대규모 포럼을 개최하면서 서로우 박사를 초청했었다.

그에 따르면 서로우 박사의 집필 방식은 마감에 쫓기는 필자 같은 사람하고는 질이 달랐다. 그는 기본적으로 사색가(thinker)다. 자신은 중요한 트렌드와 미래 예측에 대해 자기의 생각을 몇 가지 명제로 표현하는 데 주로 집중한다. 《지식의 지배》를 예로 든다면 ‘부는 이제 자본이나 노동이 아니라 지식이 지배한다’, ‘새로운 부의 피라미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 조건이 있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가운데 택해야 한다면 인플레이션이 훨씬 낫다’는 식이다.

물론 가만히 혼자 사색하며 얻게 되는 화두도 있겠지만 연구 활동을 통해, 또 각종 세미나나 포럼, 교실 수업을 통해 토론의 결과로 갖게 된 깨달음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쌓이면 책 제목과 목차를 대강 정하고 자료조사(research)팀을 구성한다. 수십 명으로 이뤄진 이 팀은 서로우 박사가 제기한 화두, 임시로 세워본 가설, 강조하고 싶은 문구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만 집중 조사하게 된다. 자신이 맡은 파트에 따라 적게는 몇 달, 길게는 수년씩 자료를 찾게 된다. 이 자료가 다 모여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축적된다고 판단되면 서로우 박사는 안식년을 내고 노스다코타 주에 있는 자신의 별장에 칩거한다. 그리고는 1년간 그곳에서 사색하고 산보하며 자료를 읽고 구상해 원고를 완성하게 되는 것이다. 출판사는 그 이후에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미리 출판사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단다.

필자는 서로우 박사의 집필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듣고서야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 있다. 바로 책안에 나오는 숫자들이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 책이 출처가 아닌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숫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논리상 필수불가결한 숫자를 찾는데 수년씩이나 공을 들였다. 예를 들어 “1890년 전기가 발견된 이후 평균수면시간이 7시간 정도로 그 이전에 비해 2시간이 떨어졌다”는 식이다.

책의 내용은 이제 우리에게서 참으로 익숙하다. 이제 개인이나 기업이나 나라나 할 것 없이 부의 원천은 지식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한 줄에 주장이 요약됐다고 볼 수 있다.

“지식은 부의 새로운 근거다. 과거에는 이런 적이 없었다. 과거의 자본가들이 자신들의 부에 대해 이야기 할 때는 공장과 설비, 자연자원의 소유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미래의 자본가들은 지식의 장악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이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은 특히 사회나 나라 차원에서 지속적인 부를 창출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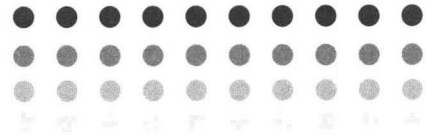
《지식의 지배》 레스트C, 서로우 지음 | 한기찬 옮김 | 생각의 나무 | 362쪽 | 값 12,000원

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이다. 서로우 박사는 지식기반경제 모델을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국가는 단단한 사회조직, 새로운 일이 가능함을 인식하고 솔선해서 그 일을 해내는 기업가 정신, 그리고 고도의 경제 성장률을 창조하기 위한 기술 도약의 기초로서의 지식 창출, 신상품과 새로운 공정 등을 위한 기능, 공장 설비 주택 인프라와 같은 도구 형성, 자연자원과 환경자원 등의 기초적 요소를 사용하여 영속적인 '부의 피라미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부를 찾으려면 이제 보물사냥꾼이 될 것이 아니라 이런 피라미드를 기획하고 결국 만들어내는 건설자가 돼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식의 지배》에서 서로우 박사는 개인, 기업, 국가가 부를 창출하기 위해 지켜야 할 법칙(rule)을 13가지 제시하면서 책 곳곳에 나누어 두었다. 눈에 띄는 것만 요약하면 이렇다.

“돈을 모아 거부가 된 사람은 없다. 진정한 부자들은 기회를 포착하고 불균형한 상황에 투자한다.” “초고속으로 성장하는 사업은 한결같이 아직은 불안하고 위험한 기술이나 개발, 혹은 사회적 불균형을 기회로 이용하고 조장한다. 그 이외의 모든 사업은 저성장 저이윤의 필수품 산업에 불과하다.” “같은 정도의 인플레이션 상황과 디플레이션 상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언제나 인플레이션 상황을 선택할 일이다.” “기업가라는 변화 주체를 대신할 기구는 없다. 게임에서 승리한 기업가는 물론 나날이 부유해지고 막강해질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없다면 경제 자체가 빈곤하고 허약해진다.” “질서를 다른 모든 것보다 높이 평가하는 사회는 창의적일 수 없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질서가 없다면 창의성은 마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듯 사라지고 만다.” “지식 기반 경제에서 개인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경력이란 것이 무의미한 이 시스템에서 어떻게 경력을 쌓아 갈 것이냐 하는 것이다.” “운(運)은 필수적인 요소다. 재능과 추진력, 인내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남이 조사해준 자료를 싸들고 자연 속에 들어가 지내며 한 줄 한 줄을 곱씹으며 글을 쓰는 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남들이 생각지 못하는 저자들만의 호사일지 모른다. 다음 세대의 저자들은 그런 환경에서 글을 썼으면 싶다. 그런 여유 속에서 사색은 사색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기찬**



● 이 글을 쓴 권영설은

현재 한국경제신문 가치혁신연구소 소장. 한국경제신문 편집국 전문위원과 대한민국 혁신포럼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있다. 연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에서 MBA(전략전공)과정을 마쳤다. 경영혁신 전문가로 정부혁신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직장인을 위한 변명)(당신의 경제수명은 몇 년입니까?) 등의 책을 썼고, 《경영이란 무엇인가》(피터 드러커의 위대한 혁신)을 번역했다.